

# 침구경험방 간행

## 우리의 침뜸, 도약의 초석을 놓자!



김형오(국회의장)

침구전문서의 효시, 침구경험방 간행 36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명불허득(名不虛得) 허임 선생님은 침 하나로 입지전을 이뤄 내 만백성의 병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후학들을 위해 침구경험방을 집대성했습니다. 침구경험방은 우리 침구술을 독창적인 경험의학 체계로 진전시킨 방대한 역사적 자료이자 세계적인 명저입니다. 간결한 내용에 실전 경험을 기반으로 편찬한 실용성이 돋보이는 전통의학 비방서로 우리 의서로는 드물게 해외에서 간행되었고 일본 침구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침과 뜸은 유구한 역사를 거쳐 오면서 민중의 삶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간편성과 경제성, 그리고 치료효과를 토대로 시대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환영받는 치료법입니다. 자고로 생로병사는 자연의 순리이지만 병을 다스리는 전통의술인 침뜸의학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지킴이'로 친근하게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침뜸역사의 우수성과 실용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침구의 위상을 정립하여 세계적인 의학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침구경험방 간행 365주년을 거듭 축하하며, 우리 전통 침뜸의학을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 헌신해 오신 허임기념사업회 김남수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는 연구와 체계적인 보급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1년 365일 내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0일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웅진교육박물관 운동장에서 침구경험방 간행 365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이준원 공주시장의 축하 모습.

## 자랑스러운 생명건강문화가 형체를 갖추고



이연숙  
(전 국회의원)

조선의 침뜸을 으뜸으로 발전시킨 침구경험방 간행 36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생명과 건강을 침과 뜸으로 지켜온 슬기로운 조상들의 역사와 문화의 복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옛것을 찾아 재현하고 기념하면서 생명건강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세미나, 기념식의 제막, 침뜸 역사신문 간행, 전문인사 초청강연회, 사진전 등을 개최 하는 것은 우리문화 중흥에 대단히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침의 종주국이고, 침술의 우수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왕조 때에 허임의 침술이 크게 알려지고 존경 받아온 생생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들 기록 중에서도 후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높은 침구경험방을 간행하여 우리고유의 탁월한 의술을 전승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문화 계승 발전에 크나 큰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우리조상의 의술을 더 많이, 더 넓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서 환자를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우리의 고유한 침과 뜸은 활성화

화 되어야 합니다.

70년대, 미국은 중국의 죽의장막을 걷으면서 중국 침술에 놀랐고 30여년이 지난 오늘, 미국 내에 70여개의 침구대학을 설립하여 연구개발과 치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의사들이 치료술로도 침술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World Health Organization)가 현대의학의 한계점을 인지하고, 못 고치는 질병과 의료수가의 부담으로 고통 받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내놓은 대체의학에서 침술은 크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몇가닥 문화권은 물론 서방 선진국들도 주목하고 발전시키는 우리나라 전통의술 침뜸은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선진적이고도 과학적인 치료법입니다.

앞으로 침술의 종주국인 우리는 국가적인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침구경험방을 통해서 입증되어온 치료법을 현대적인 기술, 로봇, 컴퓨터, 초음파 등을 활용해서 침술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여 발전시키는 일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역사적인 침구경험방 간행 36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주관해 오신 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계속해서 생명건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민간에서 '신의 의술' 만날 수 있기를



김춘진(국회의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데 다양하게 활용된 침구경험방의 간행 36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역사상 가장 뛰어났던 침구의 허임의 업적을 기리고, 침구경험방이 간행된 지 365년이 지났음에도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하여 침구경험방을 현대적인 맥락에서 다시 해석하는데 애써주신 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허임은 조선왕조실록에 '침을 잘 놓아 일세에 이름 날리는 사람' 이라고 기록되고, 침술로 선조의 고질적인 편두통을 치료한 뛰어난 침의였습니다. 또한 백성들 가까이에서 지내며 평생 동안 손에 꼽을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임은 자신이 전 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며 습득한

임상경험과 자신만의 독창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침구경험방을 저술하여 우리나라의 침뜸의술을 백성들의 생활 속에 널리 퍼지게 하였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침구인들의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선조들은 침뜸을 일상생활 가운데 보급시켜 스스로 건강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침구전문인력 양성이 아예 중단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뜸의 효과를 대중화시키기 위하여 뜸 자율화 법안을 지난 연초에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뜸 자율화 법안 통과를 통하여 뜸이 다시 우리 국민들의 일상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3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온 침구경험방의 가치가 앞으로도 더욱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민간에서 '신의 의술'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365주년을 축하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치뤄진 이날 기념식에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우리의 전통 침뜸문화의 계승 발전을 다졌다.

## 침술은 민족의 자랑이요

## 전통의 자존심이요, 문화의 저력입니다



전세일(CHA  
의과대학교 대체  
의학대학원 원장)

허임기념사업회에서 침구경험방 간행 365주년 행사를 갖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의학의 자존심, 우리 민족의 자존심, 우리 국가의 자존심을 고양시키는 뜻 깊은 행사이고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침술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요, 우리 전통의 자존심이요, 우리 문화의 저력입니다.

이러한 자랑과 자존심과 저력의 뿌리를

찾아내어 그 정체를 밝히고 정리하여 그 훌륭한 정보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허임기념사업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번 침구경험방 간행 365주년 행사를 계기로 허임기념사업회가 더욱 활발하게 성장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류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직간접으로 의학발전에 크게 공헌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온 세상 사람들 조선 침뜸으로 건강을



윤여한 (충남향토사  
연구연합회 회장)

금년은 허임 선생의 침구경험방이 간행된 지 365주년이 됩니다. 이 책은 당시까지만 해도 일반 한의학은 물론 침구(鍼灸)분야에서도 중국 의서(醫書)를 베껴 쓰는 형편이어서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오직 '침구경험방'만은 조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臨床)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의 침구술을 정리한 '조선의 침뜸의학서(醫學書)'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침구전문서의 효시(嚆矢)이며 조선의학의 창출(創出)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허임기념사업회가 2005년 발족한 이래 허임 선생에 대한 '인물(人物)과 업적(業績) 알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많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6월 20일에는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에서 '침구경험방 간행 기념식 겸 집필지 표지식'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허임 선생을 기리는 일 못지 않게 침구의 세계화를 통하여 고통 받는 이들에게 '조선의 침과 뜸'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건강과 기쁨을 주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봅니다.

## 세계적으로 지평 넓은 우리의 침술



심대평(자유선진당  
대표최고위원)

백제의 웅장한 기상이 살아 넘치고, 우리의 숨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자랑스러운 고장 공주에서 허임 선생님의 침구경험방 간행 365주년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잊혀졌던 허임 선생님을 재조명하고자 오늘 기념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사)허임기념사업회 김남수 회장님, 공주문화원 정재욱 원장님, 공주향토문화연구회 최석원 회장님, 한국침술연합회 이석기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침구경험방 간행 365주년 기념

행사는 그동안 잊혀졌던 조선의 침뜸을 으뜸으로 만드신 허임 선생님의 역사와 업적을 기리고자 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허임 선생님은 자신이 일생 동안 축적했던 침구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나이 70대 중반쯤 되던 1644년 조선 최초의 본격 침구 전문서인 침구경험방을 저술하여 조선의학의 창출을 선도해 나갔습니다.

또한 조선 침구의(鍼灸醫) 허임 선생님은 조선 백성들의 구급활명(救急活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침구경험방은 일찍부터 일본과 중국에도 널리 전해져 병으로 고통받는 무수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를 통해 허임 선생님은 물론 한국의 침구 역사에 관한 학술 연구를 활성화하고 침구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 허임선생의 삶은 드라마의 연속

대하 역사소설 '장길산'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한 인물을 소재로 쓰여진 픽션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장길산에 관한 기록은 몇줄 되지 않는다.

1692년 평안도에서 장길산을 잡으려다 실패한 고을 현감을 좌천시켰다는 기록과 반역 모의자들이 장길산과 연루되어 있다는 기록, 그리고 장길산 체포를 독려하는 숙종의 하교 몇마디가 이 장길산에 관한 기록의 전부이다. 그러나 장길산은 황석영이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도적의 우두머리'에서 '의로운 혁명가'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대장금>도 마찬가지로 조선실록의 짧은 기록을 토대로 한 재창조의 산물이다. 그에 비하면 허임선생은 행복한 편이다. 짧지만 조선왕조실록에 여러 차례 이름이 나오고 몇 권의 문집에 선생의 행장과 부친에 관한 기록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평생의 임상경험을 담아 당신의 분신같은 저서 침구경험방을 남기셨다.

이제 후세들, 특히 침뜸역사 지킴이들의 <역사적 상상력>이 모아지면 허임 선생은 장길산, 대장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역사의 전면에 '화려하

게' 등장하실 것이다.

역사적 인물들의 삶에는 늘 극적인 요소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야 '이야기거리'가 된다. 허임선생은 노비의 자식으로 침을 잘 놓아 왕을 치료하고 벼슬이 높아 시기를 받다가 이곳저곳 다니며 환자를 치료하고 또 운명처럼 '민족문화'의 중심인 공주에서 책을 집필하고 묻혀계시니 그분의 삶은 드라마의 연속이다. 또 선생의 부친은 어떤신가? 노비의 신분으로 학춤을 잘 추고 대금을 잘 부는 예약의 대가였으니 이분들의 삶은 상상할수록 흥미가 더한다.

어디 그뿐인가? 오늘날에는 '당신을 똑 닮은!' 구당 선생과 제자들이 당신이 남기신 침술로 세계를 다니며 활동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보람 있고 재미 있는 이야기 거리가 없다.

'문화의 시대'에 이같이 훌륭한 '상품'이 어디에 있을까? 소재, 즉 꺼리는 무궁무진하다. 문제는 우리의 '상상력'이다. 침뜸 역사 지킴이들의 왕성한 상상력이 모여져 '허임기념사업'이 '대박'을 터트리는 그날을 꿈 꾀본다. 참 신나는 일이다!

유영훈 (사)허임기념사업회 이사장